나주배 7.5t 프랑스 첫 수출…유럽시장 공략 본격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협약 성과
물량 확대·유통채널 다변화 지속 협력
市, 포장재·직불금 해외판로 지원 강화



나주시는 최근 나주배원예농협에서 나주배 프랑스 첫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프랑스 수출길에 오른 나주 신고배는 7.5t 물량으로 한인마켓인 에이스마트에서 판매된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지난해 체결한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협약을 실제 프랑스 수출 성과로 연결하며 나주배의 유럽시장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나주배원예농협에서 나주배 프랑스 첫 수출 상차식을 열고 올해 유럽시장 진출 확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상차식에는 나주배원예농협과 수출업체,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프랑스 수출을 축하하고 나주배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프랑스 수출은 지난해 체결한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협약의 후속 성과다. 협약 이후 현지 시장 개척과 수출 협의를 지속 추진한 결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프랑스에 수출한 나주 신고배는 총 7.5t으로 프랑스 현지 한인마켓인 에이스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현지 소비자 반응과 시장성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수출 물량 확대와 판매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프랑스를 교두보로 유럽시장 내 나주배의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나주배의 안정적인 생산과 내수 가격 안정,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출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나주배 포장재와 수출용 포장재 구입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수출 직불금 등을 통해 수출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는 기존 수출국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함께 신규시장 발굴,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나주배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프랑스 첫 수출은 지난해 체결한 수출 업무협약과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나주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바탕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은 "수출시장 다변화가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부터 수출까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주배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순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전

피해목 제거·수종 전환·공동방제 주력
유관기관·인접 지자체 협력 확산 차단


순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피해목 제거 등 방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작업 모습. 〈순천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목 제거와 수종 전환 등 방제사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방제 예산 30억원을 투입해 수종 전환, 고사목 벌채, 생활권 위험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등 지역별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감염목과 감염 우려목 4천그루를 방제하고 주택·도로 등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 피해목 500그루도 제거할 계획이다. 또 산림재난대응단을 활용한 직영 방제로 피해목 600그루도 처리한다.

별량면과 서면 일원에서는 80ha 규모의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해 피해 소나무류를 제거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황전면 일원 피해 지역은 2027년 수종 전환 사업을 100ha 이상 확대 추진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경미하거나 확산 차단이 필요한 승주·주암·송광·외서·낙안 지역과 휴양림, 치유의숲, 사찰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로 집중 방제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와 함께 봉화산·황전면 일원에 공동방제 구역을 설정해 방제 공백을 줄이고 인접한 곡성·구례·광양과도 협력해 지역 간 확산 차단에 나선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 피해 확산 차단과 생활권 안전 확보를 우선으로 방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피해목 제거와 수종 전환을 위해 산림 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지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2010년 해룡면 성산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25년까지 누적 고사목만 7만여그루에 달한다. /김재정 기자

진도産 농수산물 200만달러 美 수출길 오른다

LA 서울국제공원 일원 한인축제 참가
4개 기업 김·전복 등 현지 맞춤형 홍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지역 우수 농수산식품을 앞세워 미국 최대 한인 축제 현장을 공략하며 200만달러 규모의 대형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미국 LA 서울국제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53회 LA 한인축제에 참가해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진도를 대표하는 청정 수산물인 김과 전복을 비롯해 각종 건어물, 울금 등 현지 수요를 반영한 농수산식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행사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아우르는 굵직한 수출 업무협약이 잇따라 성사됐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브랜드관을 운영하는 '위드온나인'과 100만달러 규모의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미국 내 납품업체인 '함초롬'과도 10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총 200만달러 규모의 실적을 올렸다.

군은 협약을 기점으로 온라인 유통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고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의 우수한 자원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 기자

농협 전남본부, 하반기 신규직원 동시채용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7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동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일반관리직, 일반관리직(영농지도·농약판매), 전문직(기술관리직), 보훈 등 총 5개 부문이다. 연령과 학력, 성별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 공개채용으로 이뤄진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전일 기준 본인이나 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 가능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원서 접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농협 또는 잡코리아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다. 이후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신체검사를 차례로 거쳐 오는 12월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성학 기자

